

■ 불법광고 판치는 도심

낮 뜨거운 입간판 '밤길 점령'

② 상무지구

광주 C대리운전 콜센터에 하루 평균 걸려오는 전화는 1천500통. 이 중 40%가량이 상무지구에서 온다. 유혹점점·노래방·호프집 등 '잘 나가는' 음식점소가 밀집해 있다 보니 대리운전 요청도 많았다.

상무지구가 구도심을 제치고 광주의 새로운 밤 문화를 상징하는 '물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불법 광고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일 밤 9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C호텔 주변의 가로수에는 L대리운전과 A노래방을 알리는 불법 전단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이 전단지는 가로등은 물론, 횡단보도 안내판에도 3~5개씩 걸려 있었다. 낮에는 지상 1.5m에서 높게는 3m까지 줄줄이 매달리는 가로수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길 건너 한 포장마차 앞에는 노래방·대리운전·스포츠마사지 업소 전단지가 도배하듯 걸렸다.

인근 건물 주차관리인 김모(65·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그냥 두고 보기 민망해 하룻밤에 2~3회씩 치워 보지만 돌아서고 나면 다시 쌓인다"고 말했다.

인도나 차도를 가릴 것 없이 2~3m 높이의 '에어라이트'(고무풍선형 입간판)가 즐비하게 늘어선 길

야한 사진 가로수에 매달아 '호객'

하루 1t 트럭 2대...치워도 끝없어

을 막았다. 대부분 술집과 노래방·마사지방으로 손님을 부르는 불법 광고물이다.

그 곁에 불법 주차된 10여 대의 트럭엔 K·C·S·F 등 마사지 업소를 선전하는 전광판이 받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지럽게 세워진 승용차의 창문 틈엔 20대 여성의 가슴 노출사진과 함께 '오빠! 느껴봐'라고 적힌 명함형 전단지가 끼워져 있다.

대리운전 고객을 유혹하는 불법 광고물도 만만치 않다. 대리운전 업체 직원인 오모(49·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업체당 하루에 4천부의 전단지를 뿌린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6개사 정도이니, 상무지구에만 매일 2만4천 장이 길바닥을 도배하는 셈이다.

광주시 서구청은 매일 1t트럭 2대 분량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서구청의 관계자는 "하루 2회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고 실버정비단이 업주들을 방문해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상무·중앙·금호지구 등 관할구역이 광범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지영(여·22·광주시 서구 염주동)씨는 "낮 뜨거운 전단지를 볼 때마다 광주가 문화도시가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널려있는 전단지 때문에 행인들도 아무 거리낌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 8일 밤 서구 치평동 C호텔 앞 길. 가로수엔 불법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인도와 차도 곳곳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들이 늘어선 행인들의 길을 막고 있다.

나이트클럽 전용게시판 이라뇨?

市, 2억 들여 내년까지 100개 설치 추진 시민들 "효과 의문스럽고 불쌍 사납다"

광주시가 '나이트클럽 전용게시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낮뜨거운' 나이트클럽 전단지가 총장로·상무지구 등 광주 도심에 도배하듯 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해 생각해낸 '궁여지책'(窮餘之策)이다.

시는 10일 간부회의에서 "무분별하게 부착된 나이트클럽 전단지로 인해 저해된 도시미관을 근본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2008년까지 100개의 나이트클럽 전용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로 1.3m, 세로 2.1m크기의 게시판을 시내 주요장소 100여곳에 설치해 나이트클럽들이 이곳에만 전단지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에서다. 게시판 당 2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체 예산액만 2

억이 넘는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구상에 대해 일부에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회의론이 많다.

시가 지난 2004년 기부채납 형식으로 세운 21개의 나이트클럽 전용 게시판도 전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꾼다고 업주들이 이 게시판을 사용할지 의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나이트클럽 전단을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에서다. 게시판 당 2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체 예산액만 2

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노인 1천804명을 동원해 불법 광고물을 뜯어내고 있으나, 이들 중 20% 이상이 80대 이상으로 1시간 이상 걸기 힘든데다 전단지도 좀처럼 풀지 않고 있어 속을 썩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업주 회의의 소집해 광고물을 이 게시판에만 게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총장로에서 의류점을 하는 이모(46)씨는 "저녁만 되면 무조건 뿌려대는 불법 전단지가 게시판 몇 개 설치한다고 없어질 지 의문"이라며 "문화화수도 낮 뜨거운 전단지 전용 게시판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십시일반 모아 '아름다운 장학금'

'千未운동' 모금 148명에 전달

급여 중 1천원 미만의 돈을 떼어서 어려운 청소년 돕기에 보태는 '千未(千未)운동'이 결실을 거뒀다.

광주시와 '빛고을청소년지원시민운동본부'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천미(千未)운동을 통해 모금한 장학금 4천478만원을 중고생 148명에게 전달한다. 장학금은 중학생 82명에게 20만원씩, 고교생 66명에게 43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이 운동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광주YMCA와 YWCA, 흥사단 등 7개 단체가 '빛고을'을 어려운 청소년 10일 서구에 따르면 '365일 시민봉사'를 결성, 시와 함께 추진해왔다. 또 시와 일선 구청, 건설협회, 도시철도공사 등 50여개 기관·사회단체 등 1만5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2월로 기부금 모금 기한이 끝난 만큼 앞으로는 후원제로 전환,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1구좌에 월 5천원씩 내는 후원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6억 모금

광주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최상욱)가 출범 한 달여만에 6억원을 모금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는 최상욱(80·남화도권 회장)이사장이 지난달 말 1억원을 기탁한데 이어 후원 회원들의 회비 납부와 모금 활동을 통해 6억원을 모았다.

매달 3만원의 회비를 내는 장학회원도 500여명이 가입했고, 동구 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는 오는 2010년까지 장학금 100억원을 목표로 후원회원가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장학회가 자리 잡으면 우수 교사와 인재를 연구 활동과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사업도 폭넓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상무 '365 민원실' 개설 한달 야간·휴일 서류 발급 인기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이 개설 1개월 만에 '얽어선 안될' 주민편의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365일 민원봉사실'이 지난달 12일 상무지구 롯데마트 1층에 문을 연 이후 이날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총 3천19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평일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량은 115건(주간 97건, 야간 18건)으로 주말·휴일엔 92건을 처리했다. 이중 야간과 주말 처리 건수가 30%를 차지한다. 민원인의 51%가 다른 구에 주소지를 둔 시민들이었다.

박모(31)씨는 "인간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금요일 저녁에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는데 동료 직원이 민원봉사실을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글을 구청 홈페이지에 남겼다.

전주연 서구청장은 "광주는행과 세무서 등과 함께 행정·금융서비스를 보다 완벽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현재 밤 10시까지인 개설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65세이상 장애인 오늘 취업박람회

광주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1일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가해 65세 이상 장애인 20여명을 모집, 일자리를 알선한다. 지원 자격은 65세 이상 경비·청소·생산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희망자는 지원센터로 전화(062-239-8055~8) 신청한 뒤 이력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면접을 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새 지폐 사용 가능

광주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에서도 10일부터 새 지폐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와 교통카드 보충기 등

105대에 신권 지폐 발매기 설치작업을 완료, 13개 지하철 역에서 신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신권 전용 보충기 발매기 69대와 교통카드 보충기 36대를 설치했다.

새 기기에는 '신권전용' 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신권과 구권은 각각 전용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애안내 (Life Safety) and 신고 (New Information).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numbers for citizens.

Advertisement for 'SUN CLEAN BACTERICIDE Clean Hospital' featuring images of the device and text describing its effectiveness in killing bacteria.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다물바이오텍'.

Advertisement for ALU-TESTOL language training program, highlighting it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providing contact details for aluniversity.com.

Advertisement for '동아경찰영어' (Donga Police English) training course, including details about the curriculu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onga TV.

Advertisement for '사우스베이 한의대' (South Bay Han Medicine University), featuring an image of a doctor and text about becoming a doctor.

Advertisement for 'TOEIC강좌 퍼레이드' (TOEIC Course Parade) at '토익990점 만점' (TOEIC 990 points), including details about the cou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onga TV.

(주)다물바이오텍 전남·북총판 (062) 531-2811 011-9616-5258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51-17